

만족도를 이용한 자영업에 관한 연구

오유진¹

¹Department of Finance, University of Colorado

(2008년 12월 접수, 2009년 2월 채택)

요약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직후 자영업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자영업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두 차례의 위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자영업 구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한국노동패널의 만족도 개념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만족도는 생산성뿐만 아니라,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증분석으로는 군집분석을 통해서 자영업주들을 만족도 유형별로 구분하였으며, 각 그룹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으로 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군집분석 결과, 두 시점 모두 만족도 상, 중, 하의 3개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었으나, 내용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카드대란 직후에는 외환위기 직후에 비해 만족도 하위그룹이 현격히 축소된 반면, 만족도 중위그룹은 확대되었으며, 중위그룹의 만족도와 소득수준은 1998년보다 2004년에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는 자영업의 자발적 선택과 자영업에서의 소득기회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만족도 상위그룹은 상대적으로 고용주 비율, 교육수준, 소득이 높았으며, 연령, 서울거주비율, 근무일수는 작았다. 회귀분석 결과 직무만족은 여성의 경우 더 만족도가 높으며, 미래에 희망을 포함한 변수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에는 소득금액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 둘을 아우르는 전반적 삶의 만족에는 연령, 현직장에서의 만족정도, 교육수준, 현재건강상태가 유의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는 외국의 경우와 상반되게 국내 연구들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건강상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변수로 만족도 결정에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용어: 자영업, 직무만족, 생활만족, 군집분석, 회귀분석.

1. 서론

우리나라 통계청(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에서는 매달 경제활동인구조사로 취업, 실업, 노동력 등과 같이 인구의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통계를 공표하고 있다. 이 중 취업관련 통계인 취업자수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주(=고용주+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이루어져 있다. 통상적으로 고용주는 임금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이며, 자영자의 경우는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본인 혹은 가족과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자영업에 관한 국외연구들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 연구들에서 대표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자영업의 특성은 두 가지 상반된 견해로 분류되고 있다. 첫째는 Lucas (1978), Blau (1987) 그리고 Blanchflower와 Oswald (1998) 등의 연구에서 주장하듯이 자영업은 능력우위의 자들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여 적극적으로 선택하였다는 이론이며, 둘째는 Moore (1983), Evans와 Leighton (1989) 그리고 Dennis (1996) 등의 임금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선택하였다는 가설이다. 이와 같이 자영업

¹Post Doctor, Department of Finance, Leeds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CO 80309-0419, USA. E-mail: ouj92@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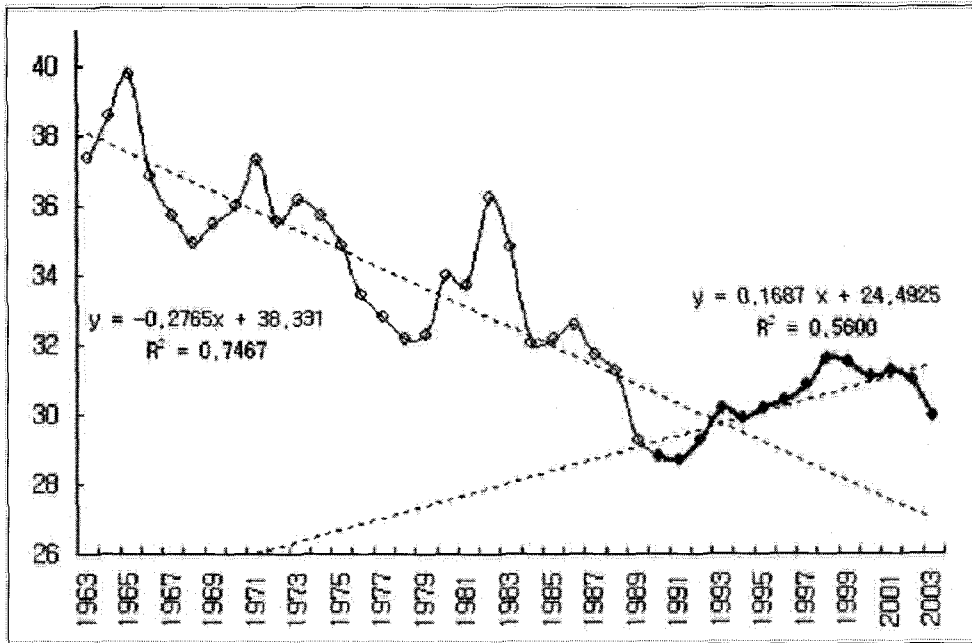


그림 1.1. 자영업주 비중 추이(비농가, 단위: %, 출처: 성지미와 안주엽 (2004))

의 선택사유는 노동시장이 효율적이며 긍정적인지 아니면 비효율적이며 경직성이 강한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말에 최초로 류재우와 최호영 (1999)이 비농가 전산업에서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980년대에 줄어들다가 1990년대에 들어 추세가 반전하여 점차 그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주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음을 보였고, 게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자영업주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자, 실업률의 증가로 임금근로의 진입이 어려워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비임금근로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자영업주의 비중이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 관련 학계의 관심이 자영업자에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1.1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에서, 비농가 부문 취업자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비농가 부문에서 자영업 비중의 감소추세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90년대 중반부터는 자영업의 비중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 초기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농촌에서 도시로 급속한 인구이동으로 도시화가 진행된 반면에, 이를 흡수할 노동수요가 충분하지 못하였음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성지미와 안주엽, 2004). 1990년대의 자영업에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자영업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요인과 자영업 부분의 구성이 어떤지에 집중되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보다 이외에도 다양한 각도에서 자영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영업주의 선택에 관련한 국내연구로는 류재우와 최호영 (1999, 2000), 김우영 (2000), 안주엽 (2000), 금재호와 조준모 (2000), 전병유 (2003), 류재우 (2004), 성지미 (2002), 성지미와 안주엽 (2004), 최강식 등 (2005) 등이 있다. 류재우와 최호영 (1999)은 자영업주들의 특성과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90년대에 들어서 자영업을 하려는 취업자들의 성향이 증대하였음을 보였으며, 이어 류재우와 최호영 (2000)에서는 실업·비경활과 자영

업 간의 노동력 유동이 한계적인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자영업을 장기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김우영 (2000)과 안주엽 (2000)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금재호와 조준모 (2000)는 자영업이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을 선택하는 저능력자군과 대조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고능력자군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보였다. 또한 자영업주는 소득 면에서도 두 집단으로 나뉘며, 임금근로자에 비해 불평등도가 심각할 것을 시사하였으며, 이들 집단은 학력과 생산성에 의해 구분이 된다고 하였다. 전병유 (2003)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아니한 금융자본이나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실업률 지표 등을 포함하여 인적자본, 기업가적 자본이 자영업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미시적 뿐만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 노동시장이나 경기변동의 여건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동산 자산 소유는 고용주 선택에서만 유의한 반면, 금융 자산 소유에 따른 소득과 실업률은 자영업 선택에 각각 부(-)와 정(+)의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였다. 류재우 (2004)는 자영업부문 취업비중 증가는 이 부문에서의 소득기회가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자영업부문 취업자의 평균능력(숙련)도 높아졌다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였다. 자영업부문 취업자 비중의 증가가 자영업 부문에서의 새로운 기회의 창출에 의한 바가 큼을 시사하였다. 또한 자영업 부문 내의 양극화의 심화, 저숙련 자영업주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의 증대가 진행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성지미 (2002)는 여성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가능성을 연구하였으며, 성지미와 안주엽 (2004)은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대한 좋은 대안이며, 가교일자리로서의 자영업의 역할과 가교일자리로서 자영업을 선택한 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최강식 등 (2005)은 분위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에서 자영업 부분의 소득의 양극화와 자영업 집단이 임금근로 집단에 비해 소득의 평균과 편차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자영업주의 만족도에 관련한 연구로는 김우영과 김응규 (2001)가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만족도는 주관적 평가로, 김우영과 김응규 (2001)는 직업만족도는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하여 평가할 때 갖는 만족스러움 또는 바람직한 정서상의 태도로서, 직업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일에 대한 동기가 높으며 생산성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직업만족도는 직업뿐 아니라 가정, 사회생활의 성취도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로 1995년에는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직업만족도가 높았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오히려 임금근로자들이 자영업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lanchflower와 Oswald (1998)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연구들에서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직업만족도가 높다고 보인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김우영과 김응규 (2001)는 그 이유로 임금부문으로부터 퇴출된 사람들이 타의에 의하여 생계형 자영업자로 전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직업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를 통하여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으로 인한 자영업주의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자영업주의 만족도에 관련한 구체적인 실증분석은 기존의 연구들과 더불어 자영업주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구체적인 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은 이원화(자발적과 비자발적 선택)되어 있으며, 두 부문의 심각한 이질성이 만족도에서도 나타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둘째, 외환위기 직후와 카드대란 후에 만족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주의 직업과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본고에서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를 제시하였으며,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만족도와 인적속성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군집분석과 회귀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정리하여 1998년과 2004년의 자영업주에 대한 실태를 파악 및 비교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 요약과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표 2.1. 1998년과 2004년도 기초통계

변수명	1998년		2004년	
	자영업주	임금근로	자영업주	임금근로
연령	45.5	37.6	48.5	38.8
학력	2.7	3.2	2.8	3.3
고용주 비율(%)	27.5	-	32.7	-
남성 비율(%)	71.6	63.1	74.7	60.3
가족동거여부(%)	98.7	96.8	99.5	97.9
서울지역거주비율(%)	26.0	28.6	20.1	24.0
직업훈련여부(%)	10.6	12.0	5.1	11.4
월소득 유무(%)	81.9	99.9	92.3	99.9
월평균 근로일수	26.3	24.9	24.3	22.9
월평균 소득액수(만원)	128	111	228	157

주: 1) 학력은 순서변수로 1(초졸), 2(중졸), 3(고졸), 4(초대졸), 5(대졸이상)이다.

2) 월평균 근로일수는 1998년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당 정규근로시간을 월 기준근로일수로 전환하였으며, 2004년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일수(자영업주)와 주당 정규근로시간(임금근로)을 월 기준으로 전환하였다.

2. 자료

2.1. 한국노동패널

본고에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차년도)과 2004년(7차년도)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영업주는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용주와 자영자 정의를 다음과 같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즉, 고용주는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자영자는 자신 혹은 무급가족종사자와 사업을 하는 경우로 구분 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의하면, 1998년에는 총 13,321명 중에서 취업자는 6,425명이고 그 중 임금근로자는 4,010명, 자영업주는 1,886명이었으며, 이는 고용주 519명과 자영자 1,36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에는 총 16,610명 중에서 취업자는 6,259명이고, 그 중 임금근로자는 4,256명, 자영업주는 1,539명이며, 이중 고용주는 503명, 자영자는 1,036명이다. 자영업주에서는 자영자가 고용주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율로 보면 1998년의 27.5%(= 519/1886)에서 2004년의 32.7%(= 503/1539)로 고용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를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 별로 정리한 표이다. 전반적으로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 근로일수', '소득', '연령', '남성비율', '가족동거비율' 등이 높은 반면, '서울거주비율', '직업훈련비율', '월 소득유무' 그리고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영업주의 '남성비율'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은 이유는 자영업주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부인은 무급가족종사자로서 근로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월 소득유무'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월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 평균소득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주의 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이원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나듯이, 외환위기 직후에는 다수가 임금근로에의 진입이 어려워져 자영업을 선택한 사례가 많이 관찰된 것에 반해, 카드대란 이후에는 오히려 자영업으로의 진입이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만족도 측면에서도 이전에 비해서 높은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2.2. 1998년과 2004년도 기초통계

변수명	1998년		2004년	
	자영업주	임금근로	자영업주	임금근로
직무만족도				
-직무전반	2.69	2.97	3.00	3.10
-소득/수입	2.11	3.43	2.40	2.71
-취업안정성	2.67	3.04	3.00	3.15
-직무내용	3.07	2.75	3.25	3.26
-개인발전가능성	2.78	3.11	2.97	3.01
-근로환경	2.81	2.98	3.03	3.14
-근로시간	2.72	-	2.91	3.10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	2.55	3.17	3.22
생활만족도				
-생활전반	2.83	2.99	3.18	3.25
-가족수입	2.37	2.65	2.54	2.74
-여가활동	2.67	2.77	2.78	2.94
-주거환경	3.05	3.09	3.23	3.24
-가족관계	3.77	3.78	3.61	3.61
-친인척관계	-	-	3.43	3.41
-사회적 친분 관계	-	-	3.40	3.40

주: 1) 직무만족도는 직무전반에 걸친 만족도를 의미하며, 1998년에는 직무전반의 항목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 항목들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자영업주의 경우 카드대란 이후를 외환위기 이후와 비교해 보면, 고용주가 차지하는 비율, 연령, 학력, 남성비율, 가족동거비율, 소득유무와 소득액은 증가한 반면, 서울거주비율과 직업훈련여부 그리고 근로일수는 짧아졌다.

2.2. 만족도 변인 측정

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의와 측정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한 만족도 항목을 만족도 변수로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설문지에는 만족도 관련하여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라는 항목이 있다. 개별 만족도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값은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로 점수가 커질수록 만족의 정도도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2.2는 한국노동패널이 보유하고 있는 만족도 종류와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별 만족도 기초통계를 나열하고 있다. 우선 만족도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에 자영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는 직무만족에 관련하여 6개 부문(소득 및 수입, 취업안정성, 직무내용, 개인발전가능성, 근로환경, 근로시간)이 있으며, 생활만족에 관련해서는 생활전반을 포함한 5개 부문(생활전반, 가족수입, 가족관계, 여가활동, 주거환경)이 있다. 2004년에는 직무관련 만족도에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는 ‘친인척 관계’와 ‘사회적 친분 관계’라는 두 개의 항목이 각각 추가되었다. 1998년에는 ‘전반적 직무만족도’ 항목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 직무관련 만족도들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만족도 자료들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98년과 2004년 모두 임금근로자들의 전반적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이 자영업에 비해 높았다. 이는 김우영과 김응규 (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대란 이후 두 집단 간 만족도 격차가 현격히 줄어들어 카드대란 이후에는 오히려

러 자의에 의한 선택으로 자영업업을 선택한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자영업주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2.2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들이 1998년도 보다 2004년도에 상승하였다. 그리고 두 시점의 공통점은 직무와 생활만족도 중에서 소득관련 항목은 모두 다른 만족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가족관계나 친인척, 사회적 친분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한편, 임금근로자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상승하였으나, '소득/수입', '개인발전가능성', '가족관계' 부문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금근로자는 1998년에는 직무만족도 중 '소득/수입'에서 만족도가 자영업주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2004년에는 그 차이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안정성과 비정규직의 확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실질적 수입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3. 실증분석 방법과 결과

3.1. 분석방법

본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영업주의 만족도 관련 실증 분석을 통하여 자영업주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자영업주를 직무와 생활 만족도들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유형별로 파악해 보고, 각 집단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연구에서 사용된 만족도 변수는 10개 이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만족도 유형별로 구분할 명확한 기준을 인위적으로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유사한 값들을 갖는 집단으로 구분하는 통계적 방법론인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에서는 값들이 갖는 거리를 측정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정보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한다. 한편 군집분석은 이상점(outlier)에 민감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만족도 항목들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이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본 연구에서 군집분석이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자영업주의 전반적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해 본다.

3.2. 자영업주의 유형별 특성-군집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k -평균 군집분석(k -means clustering)을 통해서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들에서 유사한 패턴을 가지는 자영업주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각 집단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해 보고, 어떤 항목에서 차이점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와 카드대란 이후 차이점에 대해서도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우선 군집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CCC(cubic clustering criterion)와 Hotelling's T^2 의 통계량, 그리고 Tree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였다. 그림 3.1은 이들을 정리한 그래프이다. 우선 Hotelling's T^2 는 주위보다 갑자기 현격히 큰 값을 나타내는 경우 그 다음번 수를 적정 군집수로 판단하고 있다. 그림 3.1에 의하면 1998년과 2004년 모두 1과 2에서 큰 값을 보이기 때문에, 적정 군집수는 2 또는 3으로 판단된다. 반면 CCC의 경우 3 이상의 값을 가진 군집을 적정 군집의 수로 판단하는데, 본 분석결과에서는 모두 음수를 보였다. 따라서 가장 큰 값을 적정 군집의 개수로 고려한다면, 1998년에는 3개, 2004년에는 2개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Tree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1998년과 2004년 모두 3개 혹은 4개의 군집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위의 기준들에서 적정 군집의 개수로 3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실제 분석결과에서도 3개의 군집으로 분석한 경우 보다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였기에, 최종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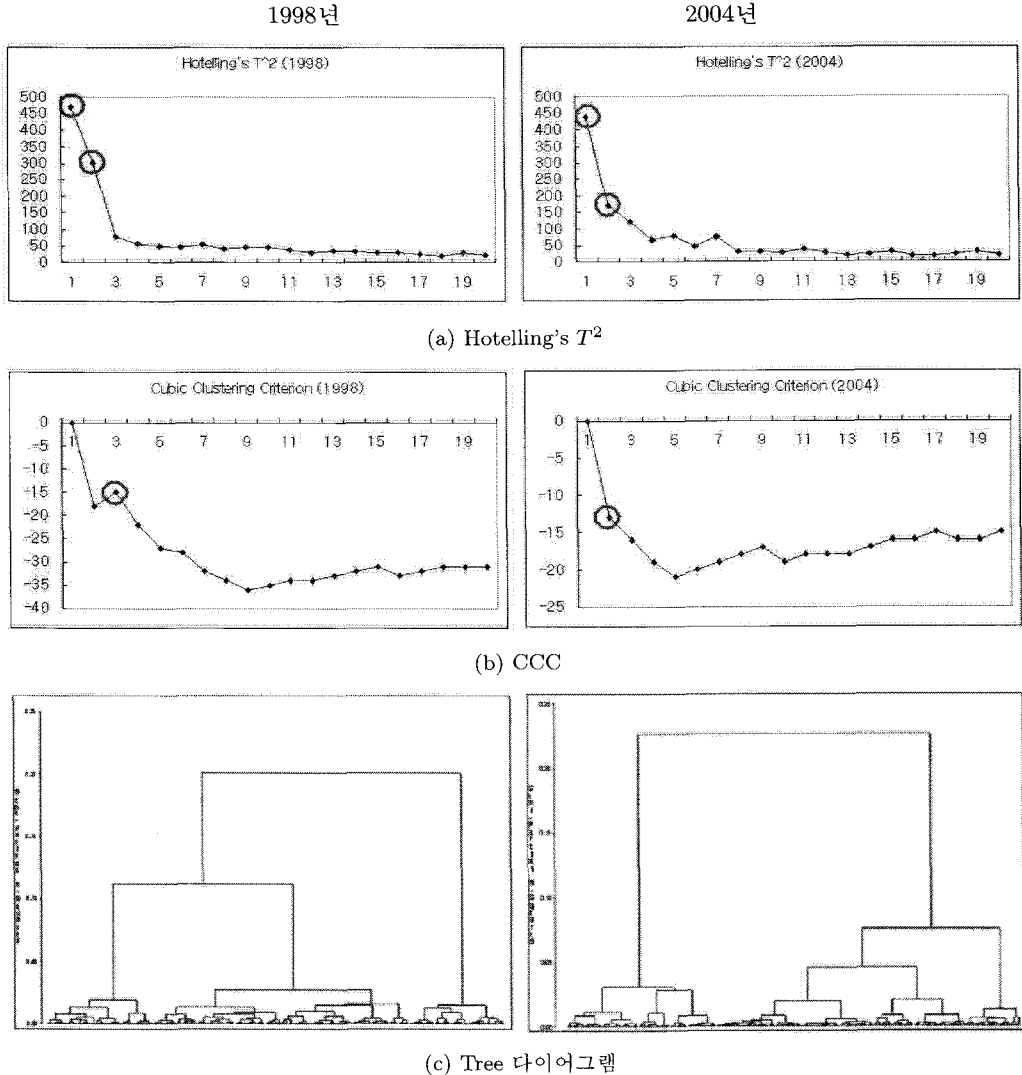


그림 3.1. Hotelling's T^2 , CCC, Tree 다이어그램 (Ward's minimum variance 방법)

로 군집의 개수를 3개로 선택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자영업주는 1998년과 2004년도 모두 각각 3개의 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각 군집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3.1에 정리되어 있다. 각 집단의 평균 만족도를 계산해 본 결과, 두 시기 모두 각 집단은 만족도 상위, 중위, 하위 그룹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8년에는 각 군집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4년에는 중위그룹의 비중이 현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1에서 각 그룹의 특성을 살펴보면, 1998년에는 상위, 중위, 하위 집단의 인원과 비중은 각각 681(36.1%), 506(26.8%), 699(37.1%)명이며, 2004년에는 437(28.4%), 823(53.5%), 279(18.1%)명으로 구성되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하위집단이 37.1%로 매우 높았으나, 2004년도에는 18.1%로 눈에 띄

표 3.1. k-means 군집분석 결과

	1998년				2004년			
	그룹1 상위	그룹2 중위	그룹3 하위	평균	그룹1 상위	그룹2 중위	그룹3 하위	평균
직무만족도								
-소득/수입	2.98	1.63	1.58	2.11	2.85	2.40	1.67	2.39
-취업안정성	3.49	2.43	2.03	2.67	3.58	2.95	2.22	3.00
-직무내용	3.64	3.31	2.32	3.07	3.91	3.12	2.57	3.24
-개인발전가능성	3.34	2.98	2.07	2.78	3.67	2.82	2.31	2.97
-근로환경	3.34	3.02	2.13	2.81	3.68	2.91	2.33	3.03
-근로시간	3.21	2.92	2.09	2.71	3.57	2.77	2.25	2.90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	-	-	-	3.71	3.07	2.59	3.17
-직무전반	-	-	-	-	3.68	2.93	2.12	3.00
생활만족도								
-생활전반	3.39	2.89	2.22	2.83	3.45	3.26	2.52	3.18
-가족수입	3.09	2.12	1.84	2.37	2.86	2.61	1.81	2.54
-가족관계	3.88	3.95	3.52	3.77	3.71	3.70	3.15	3.60
-여가활동	3.03	2.94	2.10	2.67	3.00	2.89	2.09	2.78
-주거환경	3.32	3.37	2.53	3.05	3.40	3.34	2.60	3.22
-친인척관계	-	-	-	-	3.53	3.52	2.99	3.43
-사회적 친분 관계	-	-	-	-	3.56	3.44	2.98	3.39
인원(명)	681	506	699	1,886	437	823	279	1,539
(비중)	36.1%	26.8%	37.1%	100%	28.4%	53.5%	18.1%	100%

게 줄어들었으며, 중위집단의 비중이 2배가량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능력우위의 자발적으로 자영업
을 선택한 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일반적인 가설을 감안하면, 외환위기 직후에는 대부분 자영업이 임금
근로에의 진입이 어려워 대안으로 받아들여진 반면, 카드대란 직후에는 상대적으로 능력우위의 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가 많아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표 2.1에서도 확인 되었는데, 임금
근로와 자영업주의 월 소득의 격차는 외환위기에 비해서 카드대란 이후 자료에서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
되는데, 이 역시 이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자영업의 증가, 프랜차이즈의
증가, 또한 인터넷 검색의 강화 등으로 이전에 비해 많은 정보를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 가능하여 자영업
을 임금근로 이외의 또 하나의 대등한 대안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인다.

각 그룹별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1998년과 2004년 공통적으로 그룹1(상위)은 만족도 상위 집단으로
직무와 생활만족도가 모두 평균이상으로 높은 집단이다. 그룹2(중위)는 만족도 중위 집단이며, 직무
만족도는 평균에 약간 못 미치나, 생활만족도는 평균정도이다. 그룹3(하위)은 만족도 하위집단으로 직
무와 생활만족도가 모두 평균이하로 낮은 그룹이다. 그룹2의 경우 시점 간에 직업만족도에서 약간 다른
경향이 드러났는데, 1998년에는 ‘소득’과 ‘취업안정성’ 부문에서는 점수가 만족도가 낮았지만, 나머지
부문(직무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발전가능성)은 보통 수준이다. 이와 반대로 2004년도는 ‘소
득’과 ‘취업안정성’에서는 전체 평균과 유사하나,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모두 평균에 약간 못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 하위그룹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관련 만족도(직무만족
도 중 ‘소득/수입’과 생활만족도 중 ‘가족수입’ 항목)에 있어서는 1998년과 2004년 모두 1점대로 매우
낮았으나, 가족관계와 친인척 및 사회적 친분 관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 3.2에는 전체 자영업주와 각 세부집단의 만족도들과 개인의 인적속성, 근로일수, 소득 등의 기초통계
가 정리되어 있으며, 2004년도의 경우 ‘건강상태’와 ‘현재 직장관련’ 항목이 추가되었다. 학력은 순서변

표 3.2. 집단별 기초통계

	1998년				2004년			
	그룹1 상위	그룹2 중위	그룹3 하위	평균	그룹1 상위	그룹2 중위	그룹3 하위	평균
고용주 비율(%)	33.4	20.2	20.2	27.5	43.7	30.7	21.2	32.7
연령	45.2	45.1	45.8	45.5	46.0	49.7	48.8	48.5
학력	2.79	2.75	2.49	2.7	3.29	2.71	2.53	2.8
남성 비율(%)	71.4	76.3	68.4	71.6	70.7	78.1	70.6	74.7
동거여부(%)	98.9	98.6	98.6	98.7	99.3	99.5	99.6	99.5
서울지역거주비율(%)	22.6	24.9	30.0	26.0	16.9	20.7	23.7	20.1
직업훈련여부(%)	13.5	10.1	8.0	10.6	6.4	5.2	2.5	5.1
월평균 소득유무(%)	93.3	76.6	74.4	81.9	93.6	93.8	85.7	92.3
월평균 근로일수	26.0	26.2	26.7	26.3	23.8	24.5	24.5	24.3
월평균 소득액수(만원)	161.4	114.5	97.8	128	274.7	232.7	133.4	228
현재 건강상태	-	-	-	-	3.61	3.37	3.09	3.39
1년전 대비 건강상태	-	-	-	-	2.95	2.92	2.75	2.90
보통사람 대비 건강상태	-	-	-	-	3.49	3.30	3.03	3.30
교육수준대비현재하는일	-	-	-	-	2.94	2.83	2.64	2.83
기술수준대비현재하는일	-	-	-	-	2.94	2.85	2.66	2.84
현재일자리 기술이 다른 일자리로 갈 경우 유용한 정도	-	-	-	-	3.50	3.14	2.88	3.19
나는 현재 직장에 대하여								
-만족	-	-	-	-	3.68	2.99	2.24	3.05
-열정적	-	-	-	-	3.91	3.39	2.97	3.46
-즐겁게	-	-	-	-	3.85	3.23	2.63	3.30
-보람	-	-	-	-	3.83	3.18	2.62	3.26
-지속희망여부	-	-	-	-	4.01	3.44	2.93	3.51
인원(명)	681	506	699	1886	437	823	279	1,539

수로 1(초졸), 2(중졸), 3(고졸), 4(초대졸), 5(대졸이상)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3.2에서 현재 건강상태부터 현재직장지속희망여부까지는 모두 1점(매우 불만족)에서 5점(매우 만족)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개 시점에서 모두 관측된 변수들을 시점 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룹1은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일수와 높은 소득이라는 특징이 있다. 상위그룹일 수록 고용주 비율과 학력이 높았는데, 이는 교육의 한계효과가 높다는 기존 연구들의 실증분석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또한 만족도 상위집단일수록 직업훈련에 참여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보다 많은 기회에 노출되어 있거나, 보다 많은 정보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로 판단된다. 연령대로 보면 대체로 상위집단의 평균 연령이 낮으며, 2004년에는 그 편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거주비율은 상위집단으로 갈수록 낮았다.

2004년도에만 관측이 된 변수들은 만족도 상위집단일수록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며, 교육과 기술수준 대비 현재하는 일의 수준이 높고, 현재 일자리의 기술이 다른 일자리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며, 현재 직장에 대해서도 만족하며, 보람을 느끼고 지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과 같은 특징들을 정리하면,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고학력의 고용주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고, 근로시간이 적으며, 소득이 높고, 현재직장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 또한 직업훈련에의 참가와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등 적극적이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으로

표 3.3.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전반적 직무만족		전반적 생활만족	
	1998	2004	1998	2004
연령	-0.002 (0.0018)	0.003** (0.0016)	-0.002 (0.0023)	0.007*** (0.0018)
성별(base: 여자)	-0.078* (0.0416)	-0.083** (0.0332)	0.039 (0.0529)	-0.009 (0.0373)
학력	0.020 (0.0184)	0.051*** (0.0138)	0.071*** (0.0234)	0.067*** (0.0155)
가족동거여부(base: 비동거)	0.370** (0.1793)	-0.094 (0.1830)	0.476** (0.2282)	0.070 (0.2059)
거주지(base: 서울 이외)	-0.153*** (0.0461)	-0.074 (0.0583)	-0.161*** (0.0587)	-0.069 (0.0656)
중사상지위(base: 자영자)	0.265*** (0.0480)	0.049 (0.0327)	0.068 (0.0611)	0.033 (0.0368)
직업훈련경험	0.195*** (0.0583)	0.009 (0.0671)	0.090 (0.0741)	-0.111 (0.0755)
월평균 소득유무	2.633*** (0.2452)	0.524 (0.2701)	2.128*** (0.3121)	0.785*** (0.3039)
평균근무일수	-0.012*** (0.0044)	-0.002** (0.0009)	0.003*** (0.0056)	-0.001 (0.0010)
월평균 소득	0.001*** (0.0002)	0.00002 (0.00004)	0.001*** (0.0002)	0.00001 (0.00005)
현재 건강상태		0.086*** (0.0316)		0.085** (0.0356)
1년전 대비 건강상태		-0.099** (0.0398)		0.003 (0.0448)
보통사람 대비 건강상태		0.011 (0.0327)		0.055 (0.0368)
교육수준대비현재하는일		0.105 (0.0908)		0.023 (0.1022)
기술수준대비현재하는일		0.052 (0.0921)		0.060 (0.1036)
현재일자리 기술이 다른 일자리로 갈 경우 유용한 정도		0.041** (0.0159)		0.012 (0.0179)
현재 직장에 대하여				
-만족		0.224*** (0.0239)		0.157*** (0.0269)
-열정적		-0.056** (0.0285)		-0.021 (0.0321)
-즐겁게		0.141*** (0.0341)		0.105*** (0.0384)
-보람		0.086*** (0.0329)		0.069* (0.0370)
-지속희망 여부		0.052** (0.0241)		-0.029 (0.0272)
adj R ²	0.947	0.976	0.927	0.973
관측수	1,315	1,271	1,315	1,271

- 주: 1) 괄호안은 표준오차이며 *, ** 및 ***는 추정계수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 2) 종속변수 중 1998년의 '전반적 직무만족'은 1998년도 조사항목에 없는 관계로 관찰된 직무관련 6개 항목의 평균값을 '전반적 직무만족도'로 사용하였다.
- 3) 평균근무일수는 1998년도는 한달평균 근무일수, 2004년도는 주당평균 근무시간이다.

판단된다. 반면 하위집단은 주로 상대적으로 저학력인 자영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훈련여부가 다른 군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으로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일수는 많은 반면, 소득액이 낮았다. 게다가 소득은 1998년에 중위그룹의 소득이 평균에 못 미치나, 2004년에는 중위그룹의 평균을 상회하며, 2004년에 상위와 하위그룹의 평균 소득격차는 140만원 정도로 1998년의 70만원에 비해 2배가량 격차가 더 벌어져서, 자영업 집단 내 이질성이 더욱 커졌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류재우(2004)는 자영업 범주에는 원초적인 형태로 자영업자 자신의 노동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인 '생계형'에서부터 전문직종, 첨단직종, '기업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사업 형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용주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자영자의 비중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3.3.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회귀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직후와 그 이후인 1998년도와 2004년도의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 또한 외환위기 직후와 그 후에 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달라졌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200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의 각 세부 만족도들에 대한 결정적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회귀변수는 1998년과 2004년 공통적으로 인적속성을 나타내는 '연령', '성별', '학력', '가족동거여부', '서울거주여부' 등과, '개인의 종사상지위', '직업훈련경험', '소득유무', '근무일수', '월 평균소득' 등이 있으며, 2004년에는 추가적으로 '건강관련 변수'(현재, 1년전, 보통사람대비 건강상태), '현재 하는 일의 수준'(교육과 기술수준 대비) 그리고 '현재 일자리의 유용한 정도'와 '현재 직장에 대한 평가' 변수를 고려하였다. 표 3.3은 전반적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1998년도와 2004년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관측수는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1998년에는 유효 관측수가 1,886에서 1,315건이 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유효 관측수가 1,639에서 1,271건이 되었다.

전반적 직무만족은 98년과 04년도 공통적으로 성별과 근무일수 변수가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가족동거여부', '서울거주여부', '종사상지위', '직업훈련경험', '월평균 소득유무', '월평균 소득'은 98년에는 유의하였으나, 04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에 추가된 변수 중에서는 '현재의 건강상태'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며, '기술의 유용도'와 '현재직장에 대한 만족도' 등이 모두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카드대란 이후에는 실제 소득의 액수나 소득의 유무 보다는 현재 하는 일의 유용성, 근무일수,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수들이 직무만족에 더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 생활만족에서는 '학력'과 '월 소득유무'가 외환위기 직후와 카드대란 직후 공통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소득의 정도보다 소득의 유무가 생활만족에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시점의 차이점으로는 1998년도에는 유의하였던 '가족동거여부', '서울거주여부', '평균근무일수', '월평균 소득'은 2004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2004년에 추가된 변수 중에서는 '현재의 건강상태'와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 중 일부가 유의하였다.

카드대란 이후의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직무만족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근무일수', '1년전 대비 현재 건강', '기술 유용도', '현 직장에 대한 (열

표 3.4. 직무관련 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2004년)

독립변수	종속변수 - 직무관련 만족도 (2004년)						
	소득	취업 안정성	직무내용	개인발전 가능성	근문화경	근로시간	의사소통/ 인간관계
연령	-0.005***	0.004*	0.002	0.001	0.004**	0.004*	0.000
성별	-0.048	-0.050	-0.071**	-0.059	-0.085**	-0.010	-0.001
학력	0.013	0.022	0.037**	0.074***	0.081***	0.049***	0.029**
가족동거여부	-0.030	-0.129	-0.088	-0.074	0.232	-0.077	-0.028
거주지	-0.044	0.089	0.039	-0.057	-0.109	-0.191**	0.074
종사상지위	0.094**	0.047	0.025	0.123***	0.015	0.070	0.070**
직업훈련경험	0.054	0.036	-0.041	0.076	-0.008	-0.018	0.045
월평균 소득유무	0.422	0.426	0.687**	0.677**	0.098	1.435***	1.477***
월평균 소득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평균근무일수	-0.001	0.003***	0.001	-0.002**	-0.003***	-0.014***	-0.003***
현재 직장에 대하여							
-만족	0.299***	0.227***	0.166***	0.159***	0.133***	0.135***	0.048**
-열정적	-0.091***	-0.000	-0.013	-0.060**	-0.073**	-0.029	0.008
-즐겁게	0.060	0.013	0.093***	0.007	0.099**	0.035	0.071**
-보람	0.057	0.049	0.077**	0.174***	0.138***	0.087**	0.101***
-지속희망여부	-0.067**	0.074**	0.097***	0.103***	0.048	0.056*	0.106***
교육수준대비현재일	0.113	0.152	0.195**	0.269**	0.177	0.397***	0.033
기술수준대비현재일	-0.105	-0.085	-0.104	-0.066	-0.035	-0.284**	0.004
기술유용도	0.005	0.051**	0.076***	0.054***	0.032	0.055**	0.077***
건강상태							
-현재	-0.051	0.008	0.035	0.036	0.035	0.061	0.078**
-1년전 대비	0.097**	0.072	-0.033	-0.031	0.093*	-0.052	-0.108**
-보통사람 대비	0.045	0.032	0.099***	0.003	0.059	0.040	0.023
adj R ²	0.9472	0.9584	0.9750	0.9643	0.9627	0.9538	0.9729
관측수	1,271	1,271	1,271	1,271	1,271	1,271	1,271

정, 지속희망도)가 있다. 성별은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남성보다 여성이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무만족에는 직무에 관련한 변수들 중에서 '기술 유용도'나 '현 직장에 대한 지속희망도' 등 미래에 대한 희망이 포함된 변수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만족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유무'로서, 이는 생활만족에는 현실적인 소득이 유의함을 의미한다. 또한 두 만족도 모두에 유의한 변수로는 '연령', '학력', '현재 건강상태', '현 직장에 대한 (만족, 즐거움, 보람)'이었다. 이를 통해서 이들 변수들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건강상태'는 이전의 경험적 논문들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 변수였으나, 본 연구결과 건강이라는 변수는 삶의 질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드러났다. 한편 '학력'의 경우는 교육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느끼는 만족도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 다른 국가들의 연구(교육 수준과 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결과와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직무관련 세부 만족도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2004년도 직무관련 세부 만족도는 '소득', '취업안정성', '직무내용', '개인발전가능성', '근무환경', '근로시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가 있다. 분석결과는 표 3.4에 정리되어 있다.

표 3.5. 생활관련 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2004년)

독립변수	종속변수 - 생활관련 만족도 (2004년)					
	가족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연령	0.005**	0.009***	0.010***	0.001	0.004**	0.005***
성별	-0.095**	0.053	-0.024	-0.001	0.024	0.021
학력	0.020	0.073***	0.077***	0.040**	0.051***	0.061***
가족동거여부	-0.343	-0.373	-0.136	0.167	-0.054	-0.282
거주지	-0.018	-0.085	-0.093	-0.115*	-0.170***	-0.003
종사상지위	0.063	0.078*	0.045	0.060	0.052	0.035
직업훈련경험	-0.024	-0.002	0.057	0.068	0.060	0.010
월평균 소득유무	0.943***	1.466***	1.360***	2.243***	2.133***	2.280***
월평균 소득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평균근무일수	-0.002	-0.008***	-0.003**	-0.003***	-0.001	-0.002**
현재 직장에 대하여						
-만족	0.164***	0.078**	0.086***	0.006	0.029	0.044*
-열정적	-0.009	-0.073*	-0.026	0.060*	0.007	0.061*
-즐겁게	0.058	0.108**	0.052	0.002	0.025	0.001
-보람	0.059	0.105**	0.069	0.059	0.105***	0.079**
-지속희망여부	-0.079**	-0.055	-0.000	0.045	-0.019	-0.022
교육수준대비현재일	-0.079	0.144	0.188	-0.172	-0.016	0.072
기술수준대비현재일	0.091	-0.089	-0.122	0.092	0.043	-0.024
기술유용도	0.007	0.019	0.032	0.059***	0.032*	0.044**
건강상태						
-현재	-0.057	0.063	0.065	0.093**	0.107***	0.079**
-1년전 대비	0.046	0.087	-0.059	-0.047	-0.068	-0.135***
-보통사람 대비	0.095	0.026	0.094**	0.025	0.013	0.048
adj R ²	0.9460	0.9452	0.9634	0.9771	0.9758	0.9754
관측수	1,271	1,271	1,271	1,271	1,271	1,271

표 3.4에 따르면 고용주가 자영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만족도는 ‘소득’, ‘개인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등이다. 현재직장관련항목 중에서는 ‘만족수준’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보람’과 ‘지속희망여부’ 또한 개별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상태 관련 변수들은 주로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생활관련 세부 만족도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2004년 생활관련 세부 만족도는 ‘가족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관계’가 있다. 분석결과를 표 3.5에 정리되어 있다.

생활관련 만족도 관련하여 우선 고용주와 자영자를 비교해 보면, 고용주가 자영자에 비해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하고서는 유의한 경우가 없었다. 각 만족도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가족수입’ 만족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이,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여가활동’과 ‘주거환경’ 만족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고용자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있는 경우, 근무일수가 작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또한 직장만족도(만족, 열정적, 즐겁게, 보람)가 높을수록 만족도 또한 높았다. 이를 통해서 직업에서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회적 지위와 근무여건이 좋은 경우 ‘여가활동’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관계’와 ‘친인척관

계'에서는 서울보다는 그 이외의 지역에서 사는 경우 만족도가 높았으며, '현재의 건강'이 매우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득이 있으며, 근무일수가 작은 경우, 즉, 생활에서의 여유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중요한 변인임이 발견되었다. 이와는 상반되게 '근무일수'는 '친인척관계' 만족도에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연령'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있는 경우, 근무일수가 작을수록, 직장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술유용도가 높을수록, 현재건강이 좋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와서, '사회적 친분관계'의 경우에는 다른 생활관련 만족도에 비해 많은 유의한 변수들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많은 부문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주들이 만족도가 외환위기 직후와 카드대란 직후 어떤 유형으로 나뉘지는지를 살펴보고, 각 유형별 특징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군집분석 결과, 자영업주는 두 시기 모두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을 모두 포함하여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었으며, 각 집단은 만족도 상위, 중위, 하위로 구분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도에는 상위집단과 특히 하위집단에 비중이 많이 몰려있었으나, 카드대란 직후인 2004년도에는 하위집단의 비중이 반 이상 줄어들고, 중위집단에 비중이 대거 몰렸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직후에는 임금근로직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져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카드대란 이후에는 오히려 자영업을 임금근로 이외의 또 다른 동등한 대안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영업의 성행, 정보력의 증가, 자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집단별 특징으로는 만족도 상위집단은 교육수준이 높고, 고용주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고, 근로시간이 적으며, 소득이 높고, 현재직장에서의 만족수준이 높았다. 또한 직업훈련에의 참가와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등 적극적이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하위집단은 주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일수는 많은 반면, 소득액이 낮았으며, 직업훈련여부가 다른 군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소득의 격차는 2004년에 더 벌어져서 자영업 집단 내 이질성이 더욱 커졌음을 시사한다.

회귀분석 결과, 카드대란 이후의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직무만족에 관련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직업에 관련한 변수들 중에서 '기술 유용도'나 '현 직장에 대한 지속희망도' 등 미래에 대한 희망이 포함된 변수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에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소득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였다. 전반적 삶의 만족에 유의한 변수(직무만족과 생활만족 모두에 공통적으로 유의하였던 변수들)로는 '연령', '학력', '현재 건강상태', '현 직장에 대한 (만족, 즐거움, 보람)'이었다. 이를 통해서 이들 변수들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판단된다. 이 중 '학력'의 경우는 교육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느끼는 만족도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 다른 국가들의 연구(교육 수준과 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결과와 비교된다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건강상태'는 이전의 경험적 논문들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 변수였으나, 본 연구결과 건강이라는 변수는 삶의 질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드러났다.

참고문헌

- 김재호, 조준모 (2000).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23**, 81-107.
- 김우영 (2000).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3**, 55-80.
- 김우영, 김응규 (2001).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 비교분석, <중소기업연구>, **23**, 29-54.
- 류재우 (2004). 자영업 부문의 소득기회와 선택성, <경제학연구>, **52**, 5-32.
- 류재우, 최호영 (1999).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 109-140.
- 류재우, 최호영 (2000). 자영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노동경제논집>, **23**, 137-165.
- 성지미 (2002).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25**, 161-182.
- 성지미, 안주엽 (2004). 자영업과 가교일자리, <노동경제논집>, **27**, 1-27.
- 안주엽 (2000). 경기변동과 일자리 탐색기간: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선택, <노동경제논집>, **23**, 109-132.
- 전병유 (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 149-179.
- 최강식, 정진욱, 정진화 (2005).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분위회귀분석, <노동경제논집>, **28**, 135-156.
- Blanchflower, D. G. and Andrew, J. O. (1998).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 26-60.
- Blau, D. M. (1987). A time series analysis of self-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445-467.
- Dennis, W. (1996). Self-employment: When nothing else is available?, *Journal of Labor Research*, **17**, 645-661.
- Evans, D. S. and Leighton, L. (1989). Some empirical aspects of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Review*, **79**, 519-535.
- Lucas, R. E. (1978). On the size distribution of business firms, *Bell Journal of Economics*, **9**, 508-523.
- Moore, R. L. (1983). Employer discrimination: Evidence from self-employed worker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 496-501.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Self-Employed

Oh, Yujin¹

¹Department of Finance, University of Colorado

(Received December 2008; accepted February 2009)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job and life satisfactions of the self-employed. It uses the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hereafter) data for 1998 and 2004. We examine the phases of satisfaction and what variables influence satisfaction for both years and compare the results in order to see what changed between the two regimes. We make use of *k*-means clustering to divide self-employed into similar degrees of satisfaction. As a result, we are able to classify the self-employed into three groups(low, medium and high) both for the two regimes. High groups consists of relatively younger, well-educated, low working dates, higher proportion of woman than other groups.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we have some evidence that women are more satisfied than men for job satisfaction and that the existence of income is more important than the amount of income for life satisfaction. The age, education, satisfaction for working place, and health are significant to both satisfactions.

Keywords: Self-employed, job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cluste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¹Post Doctor, Department of Finance, Leeds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Colorado 80309-0419, USA. E-mail: ouj92@hotmail.com